보도자료	사법정책연구원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2025. 10. 29.(수)	담당부서	연구기획실
	담당자	윤동현 공보판사 (☏ 031-920-3520)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 2025년도 운영위원회」 개최

▣ 사법정책연구원은 2025년 10월 28일 사법정책연구원 청사 내에서 2025년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함

- 운영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法定기구(법원조직법 제76조의6)로, 임기 2년의 위원 9인으로 구성하며 매년 1회 이상 소집함

- 現 운영위원장은 이기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前 대법관)이고, 운영위원은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위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헌 대한변협 선임부협회장, 이준명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구성됨

▣ 2025년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업무현황 등을 보고하고, 운영위원들의 사법정책연구원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 연구보고서의 배포·홍보방식, 사법정책연구원의 조직구조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운영위원들은 내년인 2026년의 기본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접수된 연구과제 제안서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미 제안된 개별 연구주제의 연구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짐. 제안된 개별 연구주제 중 관련성 있는 연구주제들을 하나로 포섭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연구주제의 범위를 세분화하는 등 후속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미 제안된 연구주제에 더하여 각 운영위원별로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함 → 징벌적 손해배상, 위자료 배상에 대한 검토나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 재판지연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한 연구, 의료시스템에 대한 사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 형식의 연구방식도 제안됨

- 실증적, 경험적 연구(empirical research)를 통하여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함.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확보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내용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됨

▣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서도 유익한 제안이 이루어짐

- 전문직 연구위원들의 추가 확충을 통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 효율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 등 다른 기관과의 적극적인 자료 공유와 협력이 필요함

▣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사법정책연구원의 향후 운영 및 2026년도 기본연구과제 선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사법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법원 내·외부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양질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